2025

믿음의 터

치유 받고 치유 하는 교회 (시147:3)



뉴헤이븐한인교회
New Haven Korean Church

2025 믿음의 터 | 목 차 |

여는 글

4 여는 글(김도훈 목사)

치유를 갈망하다

6 돌아보는 해외생활 및 혈액암과 치유의 과정(강호천 장로)

11 괜찮아 삼키기(최재령 목사)

12 나의 참된 치유자 예수그리스도(안종균 집사)

14 찬양, 치유의 통로(김건희 집사)

16 멕시코 유카탄 선교여행에서 받은 은혜와 치유(안하음 자매)

18 치유의 역사(최무석 형제)

19 용서를 통한 치유(박시연 집사)

23 할아버지 아직도 아파? (이원걸 집사)

26 회고록 (최재령 목사)

27 치유(오정원 자매)

30 친구에게(최윤옥 집사)

32 치유(이승민 자매)

말씀으로 답하다

36 Healing of the Lame Man in Acts 4:1–12(Rev. Peter Hwang)

41 찢겨진 삶의 한복판에서 만난 '수선하시는' 하나님(민재원 목사)

44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곽영진 목사)

공동체 안에서 자라다

48 영유아부
50 영상미디어위원회
52 뉴헤이븐2 구역
54 편집부
55 은혜 찬양 나누기 :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열매를 맺다

57 사진으로 보는 2025년 뉴헤이븐한인교회
63 2025 선교 사진
64 뉴헤이븐한국학교 50주년 기념글

작품으로 보는 치유

49 모자이크(영유아부)
33 The Kingdom od Heaven(CM-유치원,1학년)
34 Where Our Chrch Gathers(CM-2,3학년)
46 Light of Life(CM-4,5학년)
56 Hoonie on the Beach(남궁리한)

여는 글

담임목사 김도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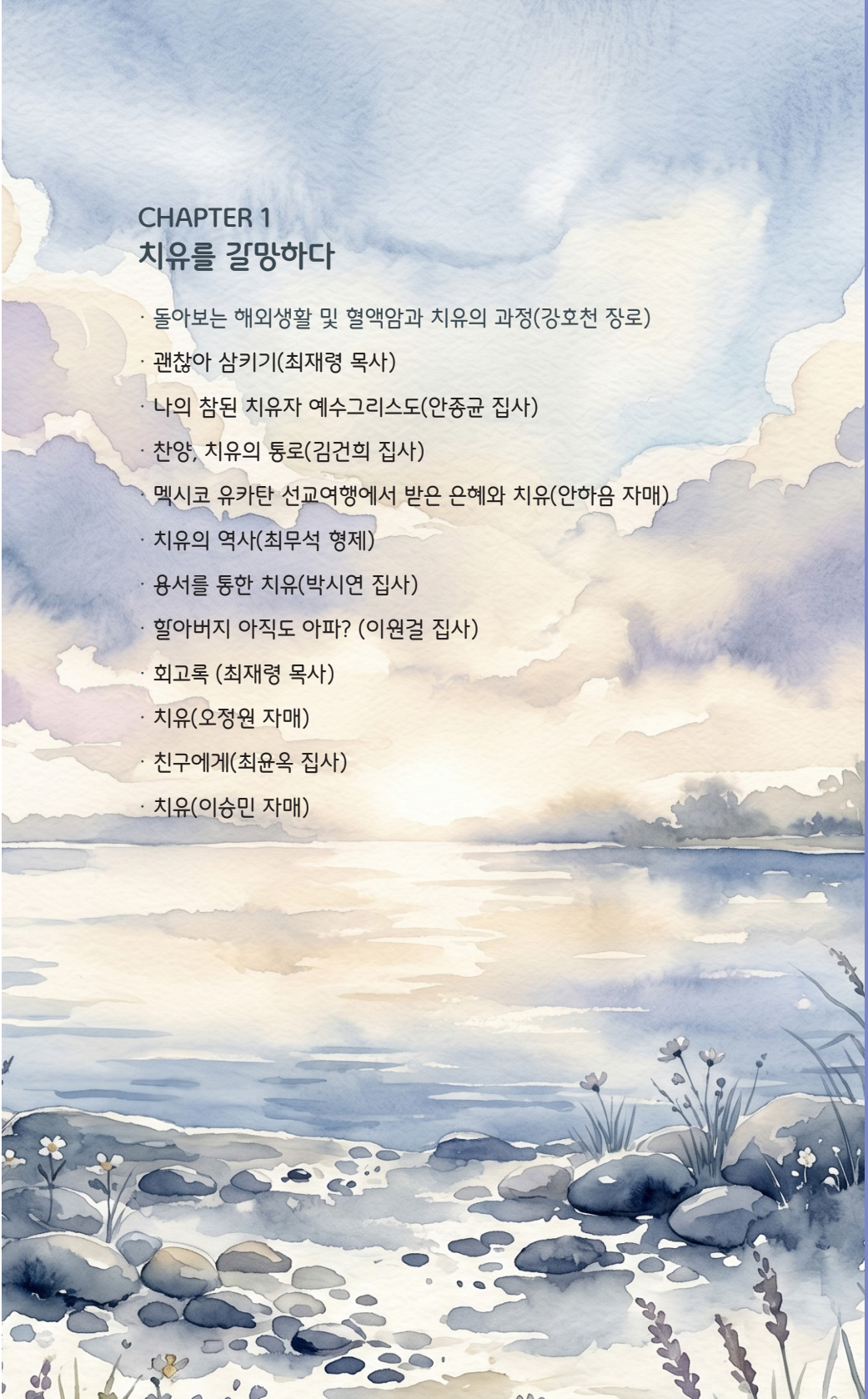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는 죄 많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삶의 여정 구석구석에는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신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믿음의 터』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이번 호에 담긴 성도님들의 진솔한 작은 삶의 이야기들과 시와 그림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만지심과 치유의 손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나눔을 통해, 척박한 인생길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귀한 원고와 작품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사랑과 정성으로 편집 작업에 헌신해 주신 박시연, 서선혜 집사님들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CHAPTER 1
치유를 갈망하다

· 돌아보는 해외생활 및 혈액암과 치유의 과정(강호천 장로)
· 괜찮아 삼키기(최재령 목사)
· 나의 참된 치유자 예수그리스도(안종균 집사)
· 찬양, 치유의 통로(김건희 집사)
· 멕시코 유카탄 선교여행에서 받은 은혜와 치유(안하음 자매)
· 치유의 역사(최무석 형제)
· 용서를 통한 치유(박시연 집사)
· 할아버지 아직도 아파? (이원걸 집사)
· 회고록 (최재령 목사)
· 치유(오정원 자매)
· 친구에게(최윤옥 집사)
· 치유(이승민 자매)

돌아보는 해외생활 및 혈액암과 치유의 과정

강호천 장로

1. Sydney – Hong Kong – New Haven

저는 결혼 후 채 1년이 못되어 1980년대 전반부에 동양의 진주라 불리던 홍콩에 한국 회사의 1인 지사에 부임하여 해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에는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로 알려진 호주의 시드니에서 또한 지사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중국의 부상으로 Business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정점을 치닫던 홍콩에 1990년대 초-중반에 다시 돌아가 지사원 및 개인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20년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업의 부침도 있었지만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미국과 영국 대학들에 자식들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 모교회 (약 1,000명)와 개척교회(약 3,500명) 포함하면 홍콩최대의 국제교회에서 2년씩 세 번 6년간 장로로 시무하였습니다. Business 환경의 변화와 홍콩에서 모시던 어머님 병환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3년 후 딸아이 초청으로 미국으로 들어와 10년째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 (New Haven Korean Church)로 옮겨 온지도 금년 가을이면 10년째가 됩니다.

2. 혈액암의 발병과 치유의 과정

(1) Blast 출현

60대 후반 70대 초까지 입원이나 심한 병치레가 없던 제가 주치의의 권유로 혈액전문의(hematologist)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변과 피검사에서 Blast (미성숙세포)가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수검사 (Bone Marrow Biopsy)를 받았고, 확실한 증상이 없어 관찰 상태로 3년여를 지내다가, 재검사에서 Blast 수치가 증가하고, 유전자 이상변이(abnormal variation of gene)가 관찰되었으며, CBC(Complete Blood Count) test 에서 Hemoglobin 수치가 떨어지고, 혈소판(Platelet)의 수치도 불안정하게 나와 다시 골수검사를 한 결과 혈액암 (골수섬유증/ 급성골수백혈병 : Blast가 20-28% 이상일 때)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초기 치료과정

Jakafi 등을 사용한 몇 가지 치료방법이 있으나,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시술(Stem cell Transplant)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확신의 결여와 공포감 등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떨어진 면역력으로 COVID 에 두 번 걸려서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Blast 등 치료를 위해 면역억제 (Immuno-Suppression) 효과를 포함한 주치의의 특수 프로그램인 약물치료를 1주씩 3차에 걸쳐 Infusion Therapy (정맥 주입요법)로 받는 동안 전혈구감소증(Cytopenia) 증상과 Hemoglobin 및 Platelet 수치가 위험 수준 이하로 떨어져 1주일에 2회 이상의 피검사와 이 두가지 수혈(Transfusion)을 계속 받아야 하였고 상기한 입원등으로 '골수이식시술의 고통이 이보다 크면 얼마나 크겠느냐'는 생각에 다다르고, 이 시술이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어, 그토록 공포감으로 꺼리던 이 시술을 받겠다고 담당의에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적절한 비유로 다가온, 남유다가 망하니 바벨론왕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려서 패망한 시드기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도 결정에 힘이 되었습니다.

(3) 골수이식과 고령환자에 대한 시술의 어려움

골수이식이란 동종조혈모 세포이식(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으로 공여자인 타인의 골수(조혈모 세포)를 이식하여 골수를 새 골수로 교체함으로 새 골수의 면역효과로 암을 제거하는 완치목적 치료입니다.

골수이식 시술 전 항암 치료 및 방사선 등으로 기존 골수를 비워내어 새 골수를 받기 위한 준비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70대의 고령환자의 경우 심장, 폐, 간, 신장등 중요 내장기관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면역력 억제 치료 후 면역 회복의 지연으로 여러 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의 증가와 재발 가능성 및 고위험 유전자 변이의 증가, 뒤에 설명하는 GVHD 발병등으로, 치료 성공보다 치료 중 사망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연령대이므로,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여 제 주요 장기 기능 사전 검사를 통해 담당 주치의사팀에 의한 시술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70세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조혈모 세포이식 시술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 골수이식 시술을 받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70대를 이미 넘어선 시점인 2년 반 전, 제반 주요 장기 기능 및 예비력 사전 평가 후 담당 주치의팀의 긍정적 판단을 받은 후, 저는 골수 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3번 시술 후 2번 등 총 6번 입원하였습니다. 생존 예상 기간이 3에서 9개월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 한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만들고 묘지도 구입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중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주저하던 골수이식 시술을 받게 되었고, 조혈모세포(골수) 공여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고려 끝에 기꺼이 자원하여 준 큰 딸의 Stem cell(Female Donor)을 이식하기로 하여 2023년 4월 하순 시술을 받게 되었고, D-day 6일전(D-6)부터 시술 준비를 하며 시술 전후 합쳐 총 28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시술 직전 (1차: 4월 초순) 및 시술 후 다섯 번에 걸친 골수 검사(Bone Marrow Biopsy: 이식 시술 후 1, 3, 5, 7, 10개월째 검사 예정됨)를 받았습니다. 1개월 후 5월 하순 2번째 검사: 정상, 3개월째인 8월 초순 : XY 6% / XX 94%, 특히 5개월째인 10월 초의 세 번째 검사의 FISH 분석 (특정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을 형광 탐침으로 확인하는 검사)에서 여성 공여자의 성염색체인 XX가 44.5% 남성 성염색체인 XY가 55.5% 나와서 이는 시술 실패 및 재발(Relapse)로 판정되어 재시술을 받던지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 7개월째인 12월 하순의 4차 검사의 FISH 분석에서 100% XX가 나와 일단 이식 수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2년 1개월 만에 헤모글로빈도 10을 기록하여 이는 회복에 대한 표적의 증표가 되어 포기하려고 하였던 생명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가까이서 느끼는 감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0개월째인 2024년 3월 검사의 FISH 분석에서도 100% 여성공여자(female donor)의XX Signal Pattern (sex chromosome : 성염색체)이 나와 이전의 검사결과를 재확인하여 주었습니다.

(5) 시술 후 주요 부작용

a) GVHD (Graft versus Host Disease): 이식편대숙주병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정상 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환자의 정상 세포(숙주)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피부, 위장관, 간 등 다양한 장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에게는 6개월 이상의 Rash(발진)와 다리 부종의 공격이 있어, Steroid 항염 및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였으며, 피부약도 전신에 발라 주었습니다.

b) 히크맨 중심정맥 카테터(Hickman Catheter) 삽입 (Hickman Central Line Catheter 설치)

이는 장기적 약물 주입, 채혈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장기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입니다. 시술 전후 및 입원 시에 매일 또는 매주 2회, 매주 1회 등으로 검사를 위한 채혈 및 정맥 주사 라인 설치(IV Line)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슴 부위에 시술로 설치합니다. 잦은 검사를 위한 채혈 시 간호원이 환자의 정맥 라인을 제대로 촉지하지 못하는 경우 2-3번의 채혈 실수로 이어지는 등의 압박감과 환자의 고통 또한 줄이기 위해 가슴 부위 약 20-30분의 시술로 설치하는데, 매주 간호원의 드레싱 교환 및 집에서는 매일 주사기 소독약으로 소독해 주어야 하고, 목욕시에는 이 부위를 방수 드레싱 커버로 감싸는 등의 불편이 있으나, 용이한 채혈로 채혈시의 압박감이 사라져 꼭 필요한 시술입니다. 저는 1년 4개월을 부착하였으며 이 기간 집사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c) 면역력의 약화

호흡기계통의 면역력 저하로 코비드나 폐렴 등에 조심하여야 하고, Gym이나 공중집회 장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며, 일정 기간 사시미/스시등 raw fish는 피해야 합니다.

d) T림프구, B림프구의 수치 저하에 따른 면역력 약화 - 예방접종 지연.

e) Blood Count의 수치 감소

치료 과정에서의 면역 억제제 주입등의 이유로 혈구수가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특히 적혈구와 혈소판의 수혈(transfusion)을 받아야 합니다.

(6) 재활

1) 면역증진제 주입

Immunoglobulin 등을 정맥 주입요법으로 받아, 몸의 면역성을 향상시켜 감기 폐렴 등 계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정기 검사와 걷기 및 근력운동

헤모글로빈 수치를 일정 수치 이상 유지 하는게 중요하며, 현재 월 단위로 피검사(CBC 검사) 및 종합대사 기능검사(CMP 검사) 등을 받고 주치의와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한 운동들을 통해 몸의 지구력, 근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연장된 생명과 소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상기한 70대 이상에서의 골수이식 시술의 어려움을 뚫고 지나오면서 현재, 과거와 비슷한 운동량을 소화해 내며 과거의 80-90% 가까이 energy level이 증가하였습니다. 몸과 생활의 모든 면을 향상시켜주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펴신 팔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보여주신 표적의 증표 붙잡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간 1년 반 이상을 기도로 중보하며 간절한 기도의 향연을 올려 보내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괜찮아 삼키기

최재령 목사

과거라 구분 지어지는 시점들의 탄생
대부분은 절연되어 멈춰버린 밤들이 남긴 소치였나 싶다

사람만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외조부의 이마 위에 파여 있던 홈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본다

좁았던 여로에서 만난 멎어버린 꿈과 제법 무거운 마음들
사정없이 베이고 덧난 발걸음을 쫓아, 비로소
함께 만들었던 약속들을 혼자서 이루곤 했다

툭툭 걸어왔던 적요한 밤들을 상처에 둘둘 싸매고
사랑했던 이름들을 구름 위에 숨기고 나면
어느새 네가 좋아라 하던 옷가지의 소매도 헤어졌다

이제는 커다란 '괜찮아' 를 제법 잘 삼킨다



나의 참된 치유자 예수그리스도

안종균 집사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셨고 주일에는 돈도 쓰지 않고 학교에 행사가 있어도 절대로 참석하지 않게 하는 등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셨으며 어찌 보면 율법적이라고도 할 만큼 교회 생활에 충실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어릴 적 저의 신앙은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 탓에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일학교를 거치는 동안 단 한 번의 신앙적인 회의나 위기 없이 자라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법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로 비치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 재수 후에 대학에 진학했지만 평소 꿈꾸어 왔던 대학이 아니었고 거리도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하게 되면서 1학기를 보냈는데 수업도 재미가 없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다시 공부를 해서 삼수를 해서 대학을 다시 가야하나 하는 생각과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중 갑자기 신앙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종교적으로 세뇌되어 고백하는 거짓 신앙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들면서 정말로 그 진리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배를 통해서도 찾기 힘들었고 소그룹 모임도 친교 중심으로 진행되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형이 경건서적으로 추천해 준 로마서 강해(마틴 로이스 존스 저)라는 책이 책꽂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강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지 몇 챕터 되지 않아서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예전에 내가 알았던 죄는 도덕적으로 지은 죄만 죄인 줄 알았는데 죄란 과녁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느끼면서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진리가 그 순간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한없는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모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 목적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후로 삼수를 하려는 맘을 접고 2학기에 대학 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났고, 그 가운데 사회생활 속에서 몇 번의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바울과 같이 내가 받았던 이 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소망하지만 아직 말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뉴헤이븐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신앙의 회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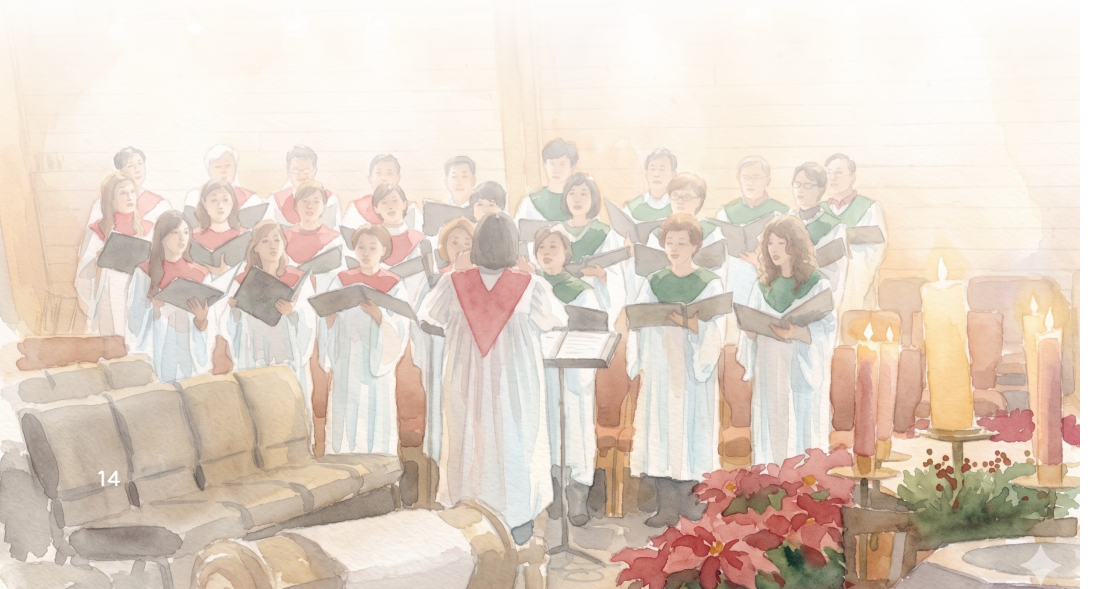
찬양, 치유의 통로

김건희 집사

예배 찬양대의 사명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제사이자, 회중에게 전해지는 치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이 합해질 때, 그것은 음악적 선율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도구가 됩니다.

찬양대가 노랫말을 붙여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는 찬양의 가사를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활자를 읽어 내는 것을 넘어 그 가삿말 속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픔 가운데 위로를 찾기 위해, 어떤 이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때 찬양의 시간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 하나, 가사 한 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것을 통해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는 단지 음악적 선율과 테크닉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전하는 역할로 예배의 인도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찬양대 개개인에게도 은혜와 치유를 가져옵니다. 연습과 예배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때 우리 자신도 회복됩니다. 주님은 찬양대를 통해 성도들을 치유하시지만, 동시에 찬양대를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찬양 지휘자로서 섬김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예배자로 찬양의 자리에 서신 많은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제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을 때, 함께 찬양함과 동시에 저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음악이 가진 울림과 말씀의 고백이 합쳐질 때, 영적·정서적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상처 입은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찬양의 사명은 단순한 음악적 봉사가 아니라, 거룩한 통로의 역할임을 생각하며 매 곡마다, 매 연습마다, 매 예배마다 이 사명을 깊이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귀한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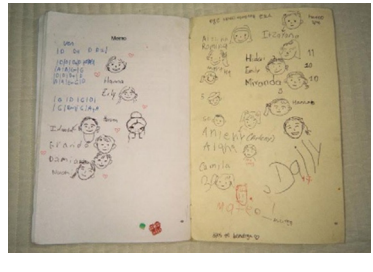
멕시코 유카탄 선교여행에서 받은 은혜와 치유

안하음 자매(Youth 1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뉴헤이븐한인교회에서 다녀온 멕시코 유카탄 단기 선교에서 받은 은혜와 치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에서는 저는 주로 VBS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VBS 사역을 하며 제가 발견한 방법인데 아이들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면 더 잘 기억이 나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도 Mateo와 Itzayana라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 엄마는 2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교회 분이시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손에 있던 booklet에 있는 Spanish 기도문이 생각이 나서 예본, 예진이랑 같이 읽으며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고 아이가 어리니까, 메디컬 사역도 한번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 메디컬 사역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다고,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devotion 할 때 다시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테이블에 소개시켜 드릴 걸, 하고 후회도 좀 됐습니다.

그 다음날도 종일 사역하는 동안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사진 부스에 가서 아이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액자에 사인해달라는 아이들을 보니까 Mateo랑 Itzayana였습니다. 옆에 어머니도 계셔서 다른 애들한테 계속 Un momento를 외치면서 그 어머니를 목사님이 계신 테이블로 모셔갔습니다. 테이블에 우리엘 목사님, 카리나 사모님, 그분, 그분의 2개월 아기, 그리고 제가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길어진다 생각하는 찰나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속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수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속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이들 이름 물어보는 것이 다였던 나의 작은 행동으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제 눈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그 교회 아이들과 집사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눈물샘이 한번 터졌었으니까 그냥 허그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너무 슬펐습니다. Arleny 엄마 집사님이랑 허그를 할 때는 그분이 갑자기 가방을 주셨습니다. 그 가방에는 la tiempo de Dios es perfecto 라고 써져 있었는데 Spanish를 몰라도 무슨 뜻인지를 한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 날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다 Mateo 와 Itzayana 가정을 만난 것, 대화가 발전해 그분이 이 교회 분이 아니라 했을 때 기도문을 같이 읽은 것, 갓난아기를 메디컬 팀에 소개시켜 주려 했을 때 마침 시간이 늦어 내일 다시 오라고 말했어야 했던 것, 그분이 다시 오신 것, 그때 마침 여유가 생겨 포토존에 있다가 아이들을 만난 것,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받은 것이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정말 완벽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면 우리는 그냥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해 보이는 내 미래에 대해서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지를 경험했으니 걱정 근심보다는 믿음으로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 선교 현장에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치유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의 역사

최무석 형제

죽기 위해 살았고
살리기 위해 죽었다

세상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하늘은 모든 것을 품었지만

그대의 상흔을 마주보고서야
눈물마저 말라붙는 것을 알았다



용서를 통한 치유

박시연 집사

저의 아버지는 새아버지입니다. 미워했고 한때는 마음을 다해 증오했던 아버지께서 지난 25년 6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러나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랐던 존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고백해 본 적 없었던 저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를 보내 드리며 깨달았던 진정한 용서와 치유에 관한 짧은 회고문입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처음 그분을 아빠라고 불렀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 풍경, 어머니의 표정까지 한 장의 사진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머니께서 행복해하셔서 저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과의 차별, 어머니가 함께 계시지 않을 때마다 제게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이 저를 아프게 했고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께서 슬퍼하실까 봐, 혹여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슬픔을 삼키며 아버지의 언행들을 참아냈지만, 제 속은 점점 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창가에 서린 뿌연 입김처럼 시린 서러움이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란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드실수록 저를 더 배척하셨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슬픔과 상처로 가득 채우신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 적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대학, 빨리 취업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어쩌다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가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아버지를 뵈어야 한다는 괴로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그 길 내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 땐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만큼이나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할 만큼 미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3년이란 시간 동안 제 작은 마음을 케케묵은 미움으로 가득 채우셨던 아버지께서 25년 6월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셨습니다. 같은 해 3월 암 판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전립선암 4기셨고, 주변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전화로 처음 투병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날 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긴 잠에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분이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봐 하루 종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할 테니 조금만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당시 저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항암 치료에 실패하시고 집에서 요양하시던 중 갑자기 비자와 관련된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며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집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아버지 상태가 악화하셨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신 지 이틀째, 중환자실에 가신 지 반나절 만에 급성심부전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처음 뵈었을 땐 혼자 걸음도 걸으셨고, 말씀도 정말 잘하셨는데, 한순간 그렇게 곁을 떠나시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중환자실 들어가실 때 샀던 용품들을 그날 저녁 다시 반품하러 가는 그 짧은 길 위에 홀로 주저앉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순간 돌아가실 거면서 왜 그렇게 평생 나를 아프게 하셨는지, 이렇게 허무히 떠나가실 거면서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해 주실 순 없었는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오랜 시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평생 아프게 했던 분은 이 세상에 없는데 슬픔과 아픔만이 가슴에 남아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 남겨진 이 아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오기 전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온기가 되어 저를 감쌌습니다. 설교 당시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은 오랜 시간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마음이 병든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도 곁에 없고,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받을 수 없는데 남은 평생을 어린 시절 받은 아픔과 상처들을 끌어안은 채 문득문득 차오르는 슬픔들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해야겠다고. 제 몸은 38살이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처받아 울고 있는 5살 꼬마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 담벼락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자고, 그리고 너도 이제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남은 너의 인생은 꽃날처럼 아름답고 찬란할 거라고. 자꾸 뒤만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들을 바람에 훨훨 날려 보내자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 주신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따스함, 포근함, 안정감들을 아이들에게 줌으로써 저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 이미 치유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투닥거리는 아이들과의 소소한 일상들이 어릴 적 제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삶이었음이 기억났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치유를 갈망하다

문득 바라보니 어린 시절의 제가 서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두 손에 따뜻한 아이들의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소중한 저의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좌절감, 공허함을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저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는지요. 목사님을 통해 제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께 기다림을 허락하셨던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이 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되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를 통해 어린 시절의 저를 치유하시고, 소중한 아이들을 제게 보내 주시어 공허했던 마음 가득히 사랑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미움을 비워야 행복을 채울 수 있음을, 상처의 치유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성도분들 중 혹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기를, 그로 인해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 때문이란 사실을 여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흘려보내고, 슬퍼하는 자신을 꼭 안아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아파?

이원걸 집사

몇 달 전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를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늑골골절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통증이 심했지만 그냥 진통제 먹고 폐활량 강화운동하며 8주가 지나니 자연치유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4살짜리 큰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갈비뼈 아파?” 이 말을 듣고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후 또 며칠 후 이번에는 아직 말이 어눌한 2살짜리 손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친 부위를 가리키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파?” 그 순간 통증이 진짜로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이 어린 것이 이런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치유의 출발은 바로 관심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박준 시인의 이런 글을 나눕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가
내 아물지 않던 상처 위에
햇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도 좋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치유는 약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교회는 ’치유 받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자 예배시간에 치유와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

1. 치유의 출발은 치유 대상의 상처 또는 문제의 인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질병, 상처, 죄책감, 감정적, 영적 갈급함 등)
2. 치유의 관문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죄의 자백과 회개이며
3. 치유의 전제 조건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4. 치유의 방법은 치유의 명약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5. 치유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각자의 입술로 시인할 때 치유가 활성화 된다고 했습니다.
6. 치유받은 후에는 치유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요8:11)"는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7. 치유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롬12:15)"

제목으로 돌아가서 치유와 관심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심리적 관점: 관심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로 느끼게 되어 자기 치유력이 활성화되고 공감은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받는 경험을 제공하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수 있게 합니다.
2. 신체적 관점: 따뜻한 관심과 돌봄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옥시토신 (신뢰와 안정의 호르몬)을 증가시켜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돌봄으로 형성된 긍정적 사회적 관계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 몸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사회적 관점:
   - 인간을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치유되는데 관심은 관계의 시작이며 진심어린 관심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하는 열쇠가 됩니다.
- 관심은 관계의 핵심요소로 관계 회복과 개인치유를 동시에 이끌고 관심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지지 받고 있다는 신뢰감을 얻어 회복을 촉진합니다.
- 관심을 받으면 상대와 정서적 연결이 생기고 이 연결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내며 그 안정감 속에서 자기 회복력이 활성화됩니다.
- 관심이 지속될 때 사람은 회복 후에도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치유가 어려운 이유

- 무관심은 곧 정서적 단절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겪는 고통이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되며 이는 자기 파괴적 사고(예: 나는 소중하지 않다)를 강화시킵니다.
-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감 받아야 치유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치료법도 관심 없는 환경에선 효과가 반감됩니다.

맺음말

예수님은 병든자, 소외된자, 죄인,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 돌봄과 구원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치유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관심을 받기보다는 관심을 주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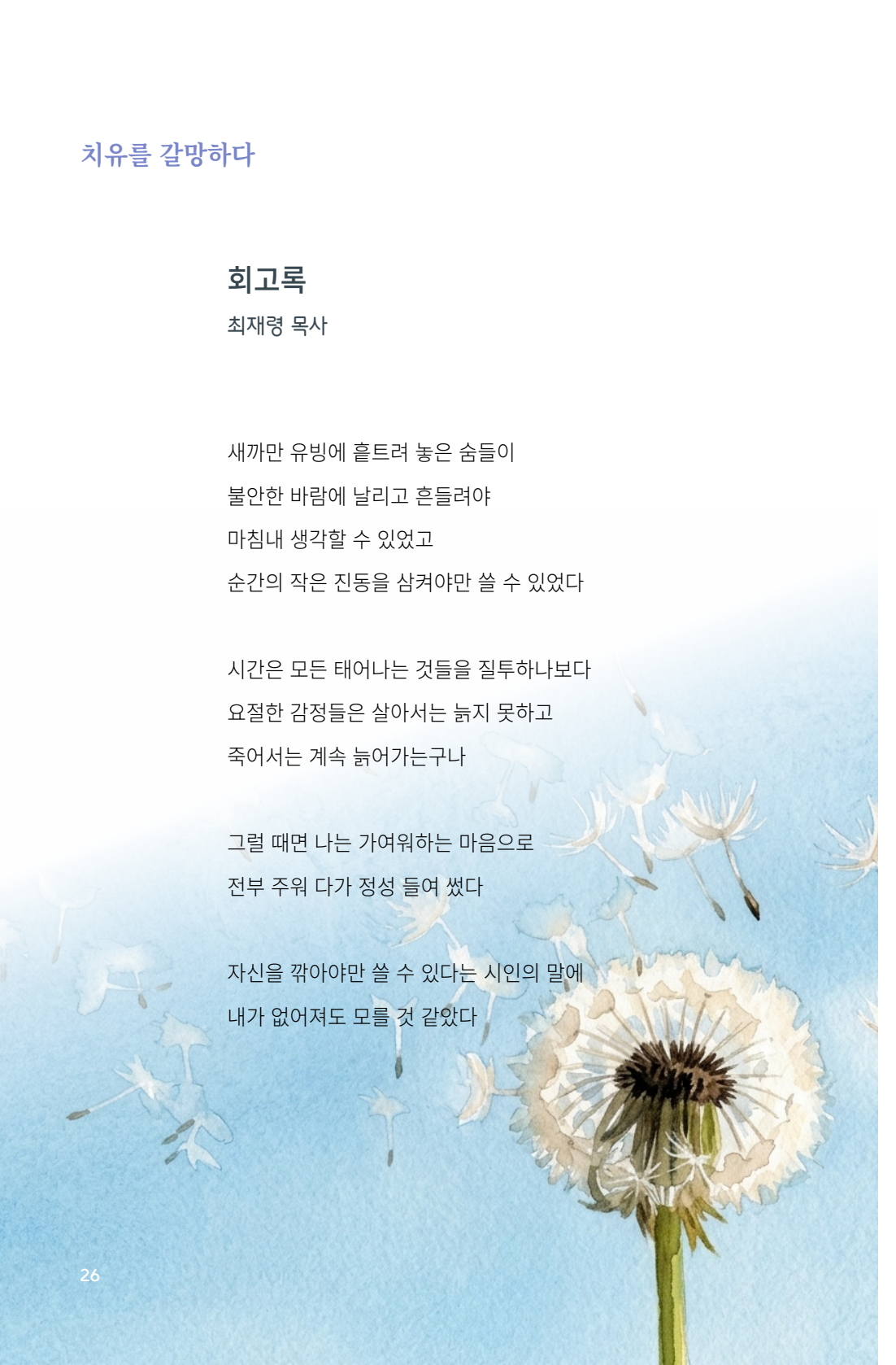
최재령 목사

새까만 유빙에 흩트려 놓은 숨들이
불안한 바람에 날리고 흔들려야
마침내 생각할 수 있었고
순간의 작은 진동을 삼켜야만 쓸 수 있었다

시간은 모든 태어나는 것들을 질투하나보다
요절한 감정들은 살아서는 늙지 못하고
죽어서는 계속 늙어가는구나

그럴 때면 나는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전부 주워 다가 정성 들여 썼다

자신을 깎아야만 쓸 수 있다는 시인의 말에
내가 없어져도 모를 것 같았다



치유

오정원 자매

"준비, 시~작!"

코치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발을 힘차게 딛는다. 시끌벅적하던 출발선을 벗어나자 쿵쾅쿵쾅 뛰던 심장은 조용해지고 온몸을 감싸던 긴장감은 날아가 버린다. 이제 발밑의 땅은 운동장의 평지가 아닌 울퉁불퉁한 풀밭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을 하늘은 그림처럼 파랗고 나무들은 시원한 바람을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역시 크로스컨트리야! 육상 선수들은 매일 트랙만 뛰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뛰나.'

난 주위 풍경에 심취해 미소를 짓는다. 운동장이 아닌 숲속, 풀밭, 언덕 등의 다양한 지형을 뛰는 크로스컨트리는 내가 가을에 하는 운동이다. 매일 2마일 이상의 거리를 뛰며 훈련하고, 수요일마다 여러 학교의 코스를 돌며 경기를 한다.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홈 경기를 치르고 있다.

코로 들숨 두 번, 입으로 날숨 한 번. 리듬을 타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자갈 위를 달리고 있다. 발밑 자갈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바닥에 눈을 고정하고 계속 뛴다. 자갈 사이사이에 꼭꼭 숨은 귀여운 도토리들이 보인다. 작은 방울 같은 몸통에 깜찍한 모자를 쓴 도토리들을 보니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하나님이 너희도 사람처럼 모두 특별하게 만드셨겠지? 그러면 너희도 이름이 있어야 마땅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웃겨 피식 웃는다.

'도토리들아, 안녕!'

치유를 갈망하다

머릿속으로 작별 인사를 보내며 자갈길을 떠난다. 이제는 그늘진 길을 열심히 달린다. 거인 같은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커다란 그림자들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준다.

'나무들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잠시만이라도 시원하다!'

나무들이 "별말씀을!" 하고 대답하듯이 나뭇잎으로 빼곡히 찬 가지들을 흔든다.

'하나님, 나무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린다. 온갖 생각들을 하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왔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고 숨은 리듬을 잃고 이제는 헐떡헐떡 쉬고 있다.

"정원아, 할 수 있어!"

코치 선생님의 응원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래, 정원아! 막판 스프린트!'

온 힘을 다해 2마일 코스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100미터를 뛴다. 내 앞에서 뛰던 상대팀 선수를 제치고 간발의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선생님이 내 등수가 적힌 카드를 주신다.

'80명 중 8등! 오정원, 제법인데!'

열심히 뛴 나 자신을 칭찬해주며 숨을 크게 쉰다. 허파가 가득 찰 만큼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만큼 크게 내쉰다.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한숨 돌리자 심장은 이제 원래의 속도를 되찾고, 나는 어느새 원상 복구되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동료들을 응원한다.

경기가 곧 끝나 아쉽지만, 뛰고 나니 온종일 머리를 뒤덮었던 숙제, 시험, 공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출발선에 버리고 온 듯 까맣게 잊어버렸다. 지금은 오직 나와 이 경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달린 후에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날개 달린 나비마냥 가볍다.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겠지……. 아쉽다. 그래도 오늘 잘 뛴 것에 감사해야지.'

나에게 달리기를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치유 시간의 마지막을 만끽한다.



친구에게

최윤옥 집사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땡스기빙

창밖에는 하염없이 비가 내리고,
향긋한 커피와 함께 손주들이 구워 온 머핀을 먹으며
너에게 편지를 쓴다.

초겨울인데도 창밖은 아직 가을 풍경이다.

가까이 아들네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축복인가? 난 오늘도 주님이 내려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한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 나에게 사랑할 가족을 주시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건강한 몸을 주시고, 그리워할 수 있는 조국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삶은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고난 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려 내려주신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 어두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밝은 빛,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이 빛나는 환희! 그래서 난 어떤 시련이라도 그것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인내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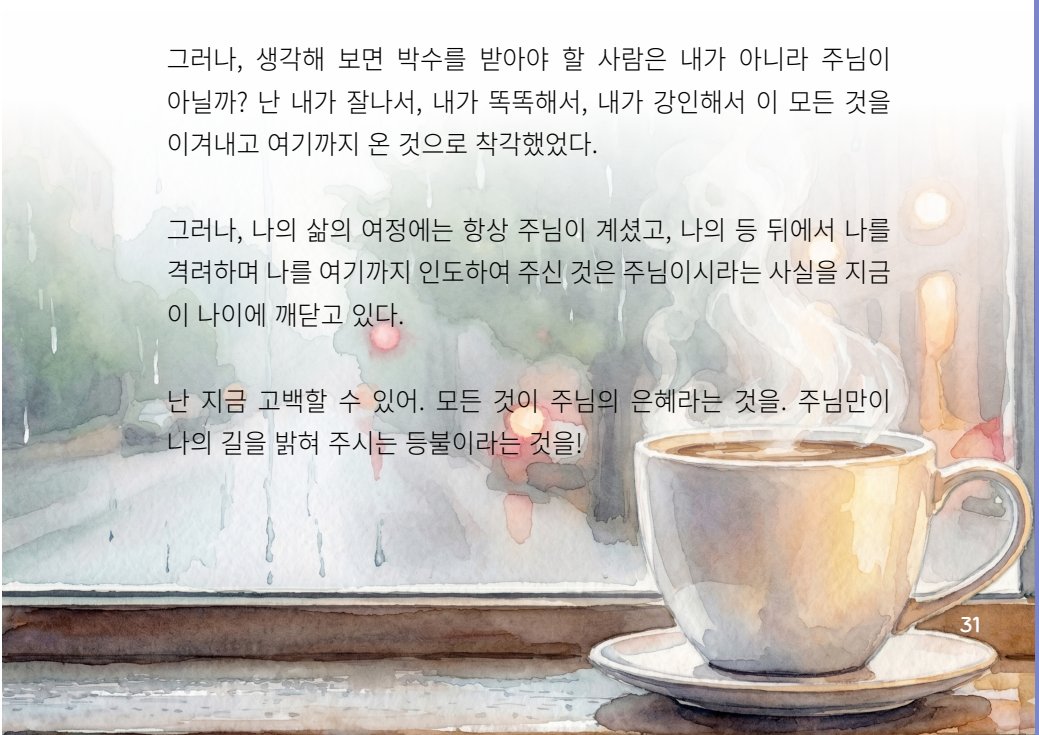
70평생을 돌아보면, 나에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의 삶 그 누구라도 영화 한 편, 소설 한 권 쓸 만한 인생이겠지만, 나에겐 특히 나의 삶이 그랬던 것 같다.

그때 생각으로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만한 일도, 나를 인생의 밑바닥 시궁창까지 끌어내려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도, 생의 목적 다 버리고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야겠다는 일들도 참 많았다.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난 분노하고 나를 갈기갈기 찢으며 피 흘리고, 너무나 아프게 투쟁했었고 결국은 이겨내었다. 그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수많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끝내 싸워 이겨낸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닐까? 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강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했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격려하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 나이에 깨닫고 있다.

난 지금 고백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만이 나의 길을 밝혀 주시는 등불이라는 것을!



치유

이승민 자매

때로는 마음이 왜 이런지, so blue
필요할 때 넌 어딨어, where are you?
눈물이 왜 나는지도 I have no clue
도대체 모르겠는 살아갈 이유

유당불내증이라 못 마시는 우유
치킨 왔는데 콜라 빠진 배달 실수
갤럭시라 안 되는 에어드랍 공유
왜 우리 집만 빠졌을까, 그 한강뷰

하지만 주님의 음성 says "I love you"
그러자 내 기분은 순식간에 all right
사랑이야말로 내가 치유 받은 이유
그분의 음성은 내 맘속 켜진 light

그분은 날 비추는 영원한 right light
이 시를 읽고 피식 웃었다면은
그것 또한... 치유
땡큐 쏘 머치 앤드 아이윌 씨유

The Kingdom Of Heaven

CM - 유치원, 1학년



Where Our Chrch Gathers

CM - 2학년, 3학년



CHAPTER 2
말씀으로 답하다

· Healing of the Lame Man in Acts 4:1–12(Rev. Peter Hwang)

· 찢겨진 삶의 한복판에서 만난 '수선하시는' 하나님(민재원 목사)

·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곽영진 목사)



Healing of the Lame Man in Acts 4:1–12

Rev. Peter Hwang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healing of the lame man in Acts 4:1–12. The methods for discussing this topic will involve: an exegetical study of the Scripture text and a hermeneutical self-consciousness that reflects on the bearing of presuppositions and theology. These two methods will be utiliz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Acts 4:1–12 today. Unless otherwise noted, Scripture quotations will follow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References to the Greek New Testament are from the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ition).

A good starting point will be to reflect on the bearing of presuppositions in order to establish relevant terms and goals for the paper. Frame defines a presupposition as "a belief that takes precedence over another and therefore serves as a criterion for another" (John M. Frame,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hillipsburg, NJ: P&R, 1987], 45). Poythress elaborates on this definition by stating: "Presuppositions include not only consciously held philosophical assumptions but unconsciously assumed elements of one's world view. They are one's basic commitments" (Vern S. Poythress, *Science and Hermeneutics: Implications of Scientific Metho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Academie Books, 1988], 164). Poythress further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being aware of the role of presupposi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1) "We never rise above our basic commitments. They control us and our interpretation more than we control them" (Poythress, *Science and Hermeneutics*, 125); (2) Biblical exegesis always occurs "against the background of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world" and is "always motivated by the personal values of the biblical interpreter" (Poythress, *Science and Hermeneutics*, 122). To apply this principle of presuppositions for this paper, I will address the important questions posed by presuppositional apologetics as developed by Cornelius Van Til who has emphasized the key role of presuppositions in theological and apologetic discussions: Are you for God or against Him? Do you bow before God as your Lord, or do you wish to be your own god and lord? Do you endeavor to obey God, or do you obey your own autonomous ideas and

standards? (Poythress, *Science and Hermeneutics*, 164–165). I am for God. I bow before God as my Lord. I am endeavoring to obey God. Thus, my Christian faith influences my interpretation of Acts 4:1–12.

Furthermore, Frame defines the "ultimate presupposition" for a Christian: "An ultimate presupposition is a belief over which no other takes precedence. For a Christian, the content of Scripture must serve as his ultimate presupposition" (Frame,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45). The method of grammatical-historical exegesis (an analysis of Scripture that involves a focus on each biblical book as a product of a human author, in a particular historical setting) is an important tool for appropriating Scriptural content (Vern S. Poythres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WTJ* 48, no. 2 [Fall 1986]: 278). Several reasons for utilizing this approach towards Biblical interpretation include (Poythres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277–78): (1) In the Bible God revealed Himself "in human language, in human situations, through human authors," therefore God Himself, gives strong support for paying attention to these human factors in order to understand His revelation; (2) Practically, grammatical-historical exegesis guards the church against traditionalism which may lead to overlooking and/or misreading of certain nuances of Scriptural meaning; (3) Grammatical-historical exegesis helps to show the progressive character of God's revelation in redemptive history (cf. Heb. 1:1–2). However, Poythress points out several qualifica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this approach in order to safeguard a responsible Biblical interpretation (Poythres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278): (1) If grammatical-historical exegesis is only attentive to the human author, the deeper nature of the human author's intention, which is for his words to be received as God's words, is distorted; (2) God encounters us as we read the Bible — His power and presence must be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3) It is important to explore what God says in all the parts of the Bible, therefore responsible Biblical interpretation requires going beyond what one could derive from any one text in isolation (although this does not imply a conflict with the results of a narrow grammatical-historical exegesis).

In Acts 4:1–12, a conflict of leadership over the people of God arises in connection with the healing of the lame man (3:1–26). The governing Jewish body in

말씀으로 답하다

Jerusalem was challenging the authority of the apostles in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4:2). In Acts 2–3, many people in Jerusalem responded to the apostles' preaching about Jesus with repentance and true faith. The apostles were emerging as leaders of Israel (cf. Lk. 22:30) by their healing and teaching. Through them, Jesus continued to be proclaimed and many people believed (4:4). However, the ultimate focus here is on Jesus rather than on the apostles —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4:2) and salvation (4:11–12) are to be found in Jesus. God has exalted Jesus to His own "right hand as Leader and Savior, to give repentance to Israel and forgiveness of sins" (5:31). Faith in Jesus Christ determines whether one is a member of the true people of God. The authority of the apostles comes from Jesus and their main commission is to direct others to Him. (David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PilNTC [Grand Rapids: Eerdmans, 2009], 184–85).

Jesus' resurrection (4:2) confirms that those who trust in Jesus will enjoy all the blessings of salvation (4:10, 12). There is a sharp contrast here between the reaction of the people and their leaders. The authorities "arrested them [Peter and John] and put them in custody until the next day, for it was already evening" (4:3). However, "many of those who had heard the word believed, and the number of men came to about five thousand" (4:4; cf. 2:41). In these chapters (2:47; 4:21; 5:13, 26), the people in Jerusalem were generally favorable towards the apostles and the early church. Their "rulers and elders and scribes… with Annas the high priest and Caiaphas" (4:5–6) met in Jerusalem the next day in order to question the apostles: "By what power or by what name did you do this?" (4:7; cf. Lk. 20:2). These were some of the same people who had put Jesus on trial and condemned Him (cf. Jn. 18:12–13, 19–24). Regarding the healing of the man lame from birth (3:1–10), Peter had previously declared that this public healing occurred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3:16). The "name of Jesus" (cf. 2:38; 3:6, 16) is a recurring theme in 4:7, 10, 12, 17, 18, 30. Now Peter, "filled (πίμπλημι) with the Holy Spirit" (4:8), boldly reaffirms his declaration about Jesus before the rulers and elders of the people (4:9–12). The verb "filled (πίμπλημι)" in 4:8 also described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in 2:4 ("And they were all filled [πίμπλημι] with the Holy Spirit"). In 4:8, the verb form of "filled" may have meant that Peter was already full of the Spirit. However, πίμπλημι is used in 4:31 to describe a further "filling"

of the Holy Spirit for continuing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even in the midst of persecution (cf. 13:52). Jesus' promise to His disciples in their future of words and "wisdom, which none of your adversaries will be able to withstand or contradict" (Lk. 21:15; cf. Lk. 12:11–12) was being fulfilled for Peter who, in this present difficult situation, was being mo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4:8; cf. Eph. 5:18). Peter begins his response to the Jewish leaders by explaining how this trial was essentially about "a good deed done to a crippled man" and "by what means this man has been healed (σῴζω)" (4:9). Here the verb form of "healed" (σῴζω) is used not only to confirm the lame man's physical healing but to also point towards a deeper significance of the healing event. Although σῴζω can refer to healing in the physical sense, it also refers to ultimate salvation — deliverance from condemnation at the final judgment of God and joyful eternal life under God's rule (cf. 2:21, 40, 47). Peter states further, "let it be known to all of you and to all the people of Israel tha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m you crucified,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 — by him this man is standing before you well" (4:10). By raising Jesus from the dead, God began the process of His salvific plan of renewal and restoration, culminating in a new creation with the resurrection of all believers to eternal life (cf. 3:19–21). As in 2:22–36 and 3:13–18, Peter affirms that God has accomplished and is continuing to accomplish His purposes through Jesus. The healing of the crippled man was not only an anticipation of the future glory to come, but also a sign of the present, heavenly authority of the exalted risen Christ to save. Psalm 118:22 is used here (4:11, "This Jesus is the stone that was rejected by you, the builders, which has become the cornerstone"; cf. Mt. 21:42; Mk. 12:10; Lk. 20:17) to emphasize the tragic rejection of Jesus by His opponents (cf. 1 Pet. 2:7). In the context of Psalm 118, "the stone" is either Israel or Israel's king, rejected by the nations but chosen by God for the accomplishment of His purposes. Jesus is "the stone" who is hated by Jewish leaders but exalted by God. This Jesus is "the cornerstone" — the central person in God's redemptive plan for His whole creation. Although there is an implicit statement of judgment here in 4:11, Peter goes on to offer hope in 4:12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lthough the Jewish ruling council would have agreed that the God of Israel is the only true savior (cf. Exod. 15:2; Ps. 96:1–5; Isa. 43:11–12; 45:22), they did not support Peter's claim that the name of Jesus is the only way one can receive salvation.

말씀으로 답하다

Jesus is now the exalted Lord upon whom one must call for salvation (2:20–21, 33–36) — God's final act of salvation has been accomplished exclusively through Jesus. Although people may consider such an exclusive claim to be difficult to accept, Acts 2–4 along with Jesus' own testimony (Mt. 11:27–30; Jn. 5:19–29; 14:6) affirm that calling upon the name of Jesus with repentance and faith is necessary for experiencing salvation.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185–92).

There are three points where one can apply Acts 4:1–12 today: (1) physical healing in the name of Jesus (4:7–10; cf. 3:6, 16; 4:16, 22; Jas. 5:13–18); (2) repentance, forgiveness of sins and salvation (4:4, 12; cf. 3:19; 5:31; Jas. 5:19–20); (3) proclamation of the Christian gospel (4:8–12; cf. 2:14–41; 3:12–26; Mt. 28:18–20). In James 5:13–20,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two points are clearly evident for the local church. Just as God used the apostles as His instruments for acting powerfully to heal the lame man, God uses the prayers of the church (both leaders and members) to bring about physical healing for the sick (Jas. 5:13–16). However, this temporal physical healing also points forward to the ultimate spiritual and physical salvation (Jas. 5:15, "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σῴζω] the one who is sick"). Furthermore, it is clear that all sinners must repent and be forgiven in order to experience eternal life (Jas. 5:19–20, "if anyone among you wanders from the truth and someone brings him back, let him know that whoever brings back a sinner from his wandering will save [σῴζω] his soul from death and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The application of the third point is evident in Matthew 28:18–20 which affirms that God's commission for His church to proclaim the Christian gospel is not limited to the apostles in early church history but extends to the current local church. Jesus promises all of His disciples: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Mt. 28:20). As long as the "end of the age," which refers to the second Advent of Jesus Christ at the end of history with the final judgment, has not occurred yet, the church is to continue in preaching/ sharing/ teaching salvation in Jesus Christ alone (4:12). The risen Christ is with His church to empower our witness to the world as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4:8).

찢겨진 삶의 한복판에서 만난 '수선하시는' 하나님

민재원 목사

우리는 흔히 치유를 '믿음의 보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간절히 믿으면 낫는다"라는 말은 때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병이 낫지 않은 이들에게는 "네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잔인한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구약을 공부하며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성경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고난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탄식시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의인이 겪는 까닭 없는 질병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믿음 없음'이나 '죄'의 결과로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치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권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리사조차 병들어 죽었고, 다윗의 간절한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치유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구약성경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독특한 뉘앙스에서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치유를 뜻하는 '라파'라는 단어에는 아주 흥미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치다'를 넘어 '수선하다', '꿰매다', '다시 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상처 난 부위를 정성스럽게 바느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립니다.

말씀으로 답하다

삶을 살다 보면 마치 옷감이 찢어지듯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관계가 해어지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제 깨어진 일상을 하나씩 다시 이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수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듯(왕상 18:30), 죄와 고통으로 너덜너덜해진 우리 인생의 자리를 다시 쓸모 있게 고쳐내십니다. 이것은 마법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한 땀 한 땀, 시간이 걸리는 '수선'의 과정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해어진 자리를 수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확히 계시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주한 쓴 물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처음 마주한 것은 축복이 아닌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변했다는 사실보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대목입니다(출 15:25).

하나님은 왜 물을 고쳐주시고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치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 때 보장되는 언약적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단 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개인의 몸을 고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로 초대합니다. 즉 구약이 말하는 치유의 완성은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 '샬롬'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평온함이 아니라, '완전함', '충만함', '모든 결핍이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해 복잡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단순히 "나았다"고 하고 끝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이 나았더라도 여전히 외롭고, 미움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깨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조화를 이루는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넘어 이웃과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샬롬의 치유는, 사실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신 한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물입니다. 글을 맺으며, 여전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사야의 약속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수선하고 계십니다.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큰 치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깨어진 존재들이지만, 그렇기에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수선받은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찢어진 마음을 함께 싸매어주는 '치유된 치유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쓴 물이 단 물이 되고, 우리의 깨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뉴헤이븐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곽영진 목사

2025년 한 해는 저에게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뉴헤이븐한인교회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새로운 만남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맞이한 첫해, 저는 교회 표어인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한 해 동안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의 회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는 저의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의 치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단지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이어지며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의 장면들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당시 질병과 연약함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사회적 단절, 소외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단절되었던 삶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의 자리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은 치유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CM-4학년, 5학년



CHAPTER 3

공동체 안에서 자라다

- 영유아부
- 영상미디어위원회
- 뉴헤이븐2 구역
- 편집부
- 은혜 찬양 나누기



영유아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샬롬!

뉴헤이븐한인교회 영유아부는 18개월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인생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기에 심겨지는 믿음의 씨앗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언어와 정서, 관계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경험하는 사랑과 기억은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영유아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와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만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밝은 찬양과 율동, 말씀 이야기와 공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여 찬양과 말씀, 공과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목사님과 14명의 선생님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또한 예배에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과 교재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영유아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동역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영유아부는 단지 아이들을 돌보는 부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터전입니다. 오늘 심겨진 작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기쁨의 공간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영유아부

섬기는 분들

담 당: 민재원 목사님

선생님: 강희영, 김권도, 김지원, 김태준, 남윤지, 박시연, 박주현, 박테레사, 오창인, 이인혁, 이재은, 조은빛, 한새연, 한수만

영상미디어 위원회

영상미디어위원회는 강희견 장로님의 인도 아래 예배 미디어와 음향, 유튜브 생중계 및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하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성도님의 손길이 모여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흐름을 돕는 PPT 제작팀이 있습니다. 주중에 주보와 성가대, 특송, 찬양팀, 목사님 말씀 등 각 부서에서 전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배를 위한 하나의 편집본을 완성합니다.



예배 당일에는 방송실에서 분주한 섬김이 이어집니다. 제작된 PPT를 순서에 맞춰 송출하며, 동시에 현장 음향 조정과 카메라 조작, 실시간 유튜브 송출을 담당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성도님들이 다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업로드 작업까지 이어집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의 자리에 영상미디어위원회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 외에 홈페이지도 성도님의 헌신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세심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섬기는 분들

담당: 강희견 장로님

영상/음향: 강희견, 한국일, 안지혁, 윤호산, 최성택, 이성일, 이승섭, 천병진, 서선혜

PPT: 강희영, 김남현, 김민정, 김지웅, 서선혜, 신진규, 양태석, 유혜진, 이소라, 임은지

웹페이지: 최정열

뉴헤이븐2 구역

뉴헤이븐 2구역은 '성장'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곳입니다. 대학 캠퍼스 가까이에 자리한 이곳에서, 구역 식구들은 학업에 매진하고 새로운 진로를 꿈꾸며,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삶의 소중한 변화들을 지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품고 뉴헤이븐으로 이주해 온 식구들은, 이곳에서 다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가운데, 뉴헤이븐 2구역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구역을 이루어 간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희 가정은, 3년 전 뉴헤이븐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열 살, 다섯 살, 두 살—세 딸을 키우는 '딸 부잣집'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가정임을 알기에,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함과 감사함이 함께합니다.

일과 육아에 쫓기다 보면 마음만큼 더 살피고 돌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늘 한 자리를 지켜 주고 함께해 주는 식구들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구역 시간을 지키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은 저희 가정에 있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는 시간이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연결고리이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역 모임은 저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육아와 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구역 모임의 시간은, 치열했던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소중한 초대와도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구역을 통해 서로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역에는 1년이 넘도록 매주 간절히 올려 드리고 있는 건강 회복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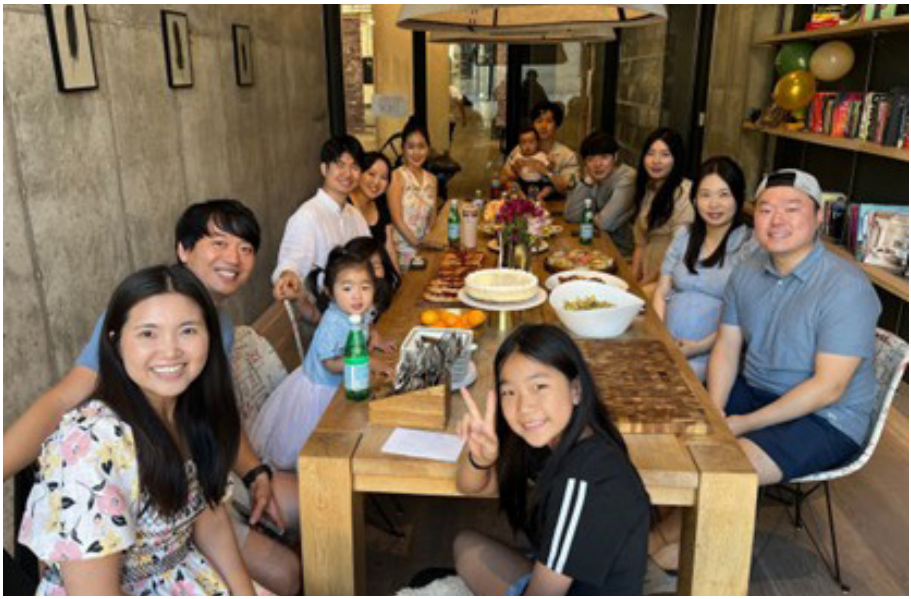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영주권, 임신과 출산, 육아와 진로, 나아가 신경과학과 우주 기온에 대한 연구까지 각자의 삶과 부르심이 담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넘어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느끼며 깊은 감사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언젠가 구역 식구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을 만나, 저희의 기도의 지경이 우주까지 넓어졌습니다. 형제님을 만난 것은 저희에게 큰 감사입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이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 저희는 오늘도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집부

현재 편집부는 두 명의 부원이 마음을 모아 섬기고 있는 작은 부서입니다. 매년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의 터를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래 믿음의 터는 꾸준히 발간되어 왔으나, 장로님의 이사와 부서 재편성을 거치며 잠시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후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해 지금의 편집부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현재는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편집부장의 빈자리를 채우며 두 명의 부원이 섬기고 있습니다.

편집부의 역할은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보내 주신 원고를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는 일입니다. 원고 취합부터 흐름에 맞는 배치, 교정·교열, 디자인, 인쇄 주문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술적인 편집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일은 소중한 원고를 모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늘 원고가 부족하여 성도님들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문 편집자가 아니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를 글과 그림으로 나누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터가 더욱 풍성한 은혜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원고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분들

편집부원: 박시연, 서선혜

은혜 찬양 나누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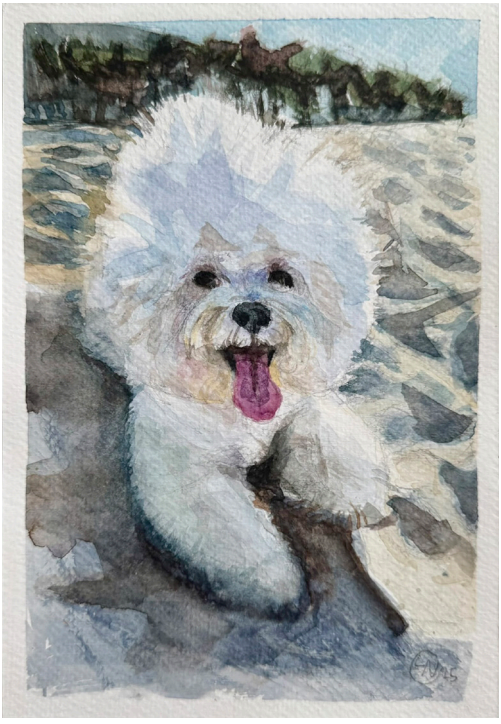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영상으로 보기
Scan this QR cord

해변의 후니

남궁리한



Hoonie On The Beach, 2025,
watercolor, graphite on paper, 9 × 6 inch,
Namgoong Leehahn (b.2011)

이 그림은 네 살 된 우리 강아지 후니와 함께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담은 거예요. 우리 가족인 후니는 외동인 저에게 동생 같은 존재랍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말없이 다가와 옆에 있어 주고, 조용히 위로해 줘요.

후니가 있는 곳은 항상 따뜻한 기운이 돌고, 사람들 사이 분위기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후니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이 그림은 그날 해변에서 조용히 웃고 있던 후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말은 없었지만, 참 따뜻했던 순간이었어요

CHAPTER 4

회복의 열매를 맺다

· 사진으로 보는 2025년 뉴헤이븐한인교회

· 2025 선교 사진

· 뉴헤이븐한국학교 50주년 기념



사진으로 보는 2025년 뉴헤이븐한인교회


창립 52주년 예배 후



임직식


임직식


성지순례


성지순례


윷놀이


윷놀이


성경퀴즈대회
JUICED UP WITH
Bible
ORANGE
2


부활절


성극
2025년 5월 13일


남선교회 골프대회
2025 뉴헤이븐한인교회
선교 후원 골프대회


남선교회 골프대회


여선교회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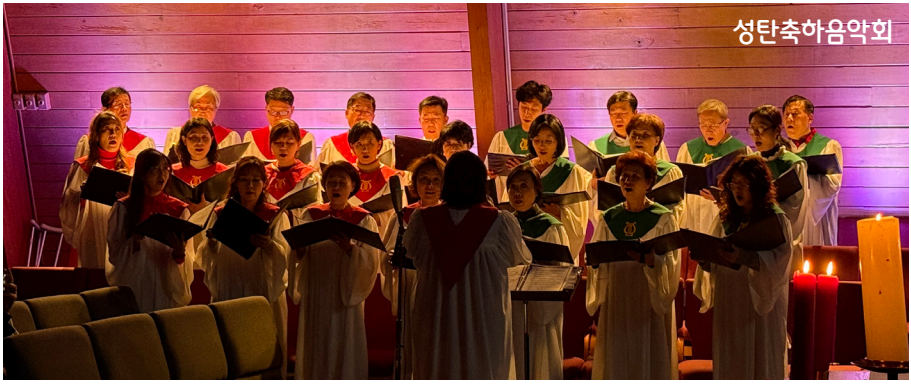

여선교회 수련회
(주제: 섬김)
여선교회 수련회


성탄예배


성탄예배



성탄축하음악회


성탄축하음악회

회복의 열매를 맺다

선교사진











뉴헤이븐한국학교 50주년 기념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2026년을 맞아 우리 뉴헤이븐한국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5월에 우리교회 교인이시며 코네티컷 한인회회장을 역임하신 이홍만회장님께서 그 당시 코네티컷 중남부지역 한인사회의 중심역활을 하고 있던 우리 뉴헤이븐한인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에게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코네티컷에 처음으로 한국학교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1973년에 시작된 우리 뉴헤이븐한인교회 장로님이셨고, 맨하탄한인교회 윤응팔목사님(1946 - 1964)의 사모님으로 20여년간 예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윤상순장로님께서 은퇴후에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장직을 맡고 계셨는데, 자연히 우리 뉴헤이븐한국학교 교장직도 맡아 주셨습니다.

한국학교 초창기에는 그 당시 예일대학원생들과 우리 교인들께서 교사를 맡아주셔 자연히 우리교회 예배후에 한국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헤이븐한국학교는 초창기부터 학생들에게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수해 주는것을 중요시하여 지금까지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30주년, 40주년 기념집에 많은 졸업생들의 글을 싣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어려서 한국학교에 다닐때는 잘 몰랐으나 나중에 대학에 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느끼게 되는것은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말과 한국문화가 자신들의 인성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되 말하는 것 으로 보아 한국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후세대를 위해 지속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립50주년을 맞이하는 뉴헤이븐한국학교가 계속해서 우리 한인2세, 3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와 문화를 전수하여 이 미국땅에서 Korean - American의 긍지를 가지고 차세대 리더로 더욱 성장하여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0년간 열과 성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때마다 도와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간 뉴헤이븐한국학교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장, 이종임 드림

닫는 글

편집부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 조지훈의 <사모>

평생 바다를 일궈온 한 어부가 건배사로 이 시를 읊조리며, 사실 자신의 꿈은 작가였다고 고백하던 장면을 아시나요? 투박한 말투와 그늘진 손등, 하지만 시 한 구절 한 구절에 진심을 담아내던 그의 몸짓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삶과 꿈이 한 편의 영상으로 담겨진 것 처럼, '믿음의 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담아내는 장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바람대로 성도님들이 보내 주신 원고 속에는 지나온 신앙의 여정과 간절한 꿈, 그리고 삶으로 써 내려간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했습니다. 2025년 '치유 받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스스로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건져 올린 고백들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원고를 집필하며 마음을 쏟아주신 성도님들과 정성껏 지도해주신 김도훈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작품으로 '믿음의 터'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각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터'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기원하며,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헤이븐한인교회

New Haven Korean Church

발행일	2026년 06월 17일
발행처	뉴헤이븐한인교회
편집부원	박시연, 서선혜
주소	42 Glen Parkway Hamden, CT 06517
문의	203-287-0110

예배 안내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봉사자 예배	오전 9시 30분(교육관)
영어 예배	오전 9시 30분(교육관)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시(교육관)
어린이 예배	오전 11시(교육관)
영유아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8시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브니엘 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주일제외)
벧엘 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 오시는 길:

42 Glen Parkway, Hamden, CT 06517

(for GPS: 110 Mountain View Terrace, North Haven, CT)

기타 자세한 정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newhavenchurch.org/

뉴헤이븐한인교회

New Haven Korean Church



믿음의 터 PDF로 보기
Scan this QR cord